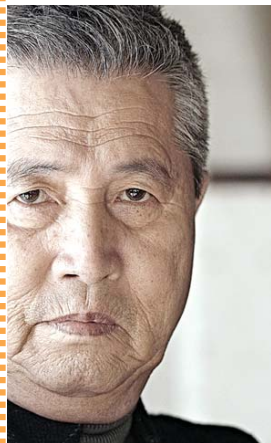


영 화

새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

임권택 감독 101번째 영화

조선왕조실록 복본을 맡게 된 필용
다큐감독 지원의 촬영까지 돕게 되고

‘서편제’, ‘취화선’ 등을 만든 거장 임권택 감독의 101번째 영화로 전통 한자가 영화의 주요 모티브가 됐다. 만년 7급 공무원인 필용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 효경을 돌보며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시청

한지파에 배치된다.

시장이 관심을 쏟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복본 사업을 맡게 되면서 승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다. 예산도 적는데다 옛 전통방식을 따르라는 말에 한지업자들의 반응 또한 냉랭하다

여기에 한지 제작 과정을 찍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지원의 촬영 섭외 일까지 맡게 되면서 필용의 짜증은 깊어만 간다.

한편 효경은 남편과 지원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감지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박종훈이 임감독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임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씨받이’와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베니스영화제와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강수연이 함께 출연한다. 예지원·안병경 등도 힘을 보탰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작했으며 ‘서편제’ 음악을 담당했던 김수철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다. 임 감독이 직접 각본까지 썼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랜만의 귀환.’

소식이 뜸했던 감독들이 다양한 소재의 영화를 통해 컴백하고 있다.

‘미술관 옆 동물원’, ‘집으로’의 이정향 감독은 무려 9년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이 감독의 복귀작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가 서로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오늘’이다. 뽕소니 사고로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방송국 PD 다혜 역으로는 송혜교가 캐스팅됐으며 아빠의 구타에 시달리는 천재 소녀 지만역으로 드라마 ‘미실’에서 어린 섣달여왕 역할을 맡았던 남지현이 출연한다. 송창의·기태영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집으로’ 이정향 감독, 송혜교 캐스팅 ‘오늘’로 9년만에 메가폰 잡아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 국내 첫 3D 블록버스터 ‘제7광구’ 촬영

강제규 감독, 장동건 주연 제작비 300억 ‘마이웨이’ 한일 동시 개봉

‘그대 안의 블루’를 거쳐 2000년 ‘시월애’를 끝으로 작품을 내놓지 않았던 이정향 감독도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가 메가폰을 잡은 ‘푸른 소금’은 은퇴한 조직보스를 죽이기 위해 접근한 정체불명의 여자가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살인을 망설이게 되면서 풀이될 수 없는 위험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송강호가 영웅하면서 진지한 보스 두현 역을 맡았으며 드라마 ‘거침 없이 하이킥’의 신세경이 그와 미묘한 감정을 쌓아가는 세빈역으로 출연한다. 두현은 보스 자리에서 물러나 요리학원에 다니는 남자며 세빈은 전직 사격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여자다.

천정명·김민준·윤여정·오달수·이종혁 등 화려한 조연진들이 눈길을 끈다.

2007년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화려한 휴가’ 이후 연극 연출에 나서는 등 차기작 소식이 뜸했던 김지훈 감독은 국내 최초 3D 해양 블록버스터 ‘제7광구’로 여름 시즌 관객들을 만난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석유 시추선 ‘이름 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인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로 현재 모든 촬영을 마치고 CG 등 후반작업중이다. ‘시크릿 가든’으로 한창 주가를 올린 하지원을 비롯해, 안성기·오지호·박철민·이한위·차예련 등이 출연한다.

김지훈 감독은 도시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그린 블록버스터로 설정구·김상경이 주연을 맡은 ‘타워’도 준비중이다.

‘은행나무 침대’, ‘쉬리’를 거쳐 지난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강제규 감독도 다시 메가폰을 잡고 촬영에 한창이다. 그의 복귀작은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소련군 포로를 거쳐 독일군 병사가 돼 노르망디상륙작전 전투에 투입된 한 조선인의 기구한 삶을 그린 ‘마이웨이’.

장동건과 많은 한국 팬을 거느린 일본 배우 오다 기리조가 주연을 맡았으며 5월께 촬영을 마치고 연말 일본과 동시개봉한다. 마케팅비 등을 포함한 총 제작비가 300억원으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제작비다.

그밖에 ‘첫사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이명세 감독은 강동원이 주연을 맡았던 ‘M’ 이후 4년만에 ‘미스터 K’를 연출한다. 한국형 첩보영화를 표방하는 ‘미스터 K’는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만든 영화사 JK 필름과 작품을 준비중이다.

또 엄정화 주연의 ‘오로라 공주’(2005)를 통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배우 출신 방은진 감독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세명의 어린 과부가 등장하는 ‘이화에 월백하고’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집안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객실요금

4만원

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별관 내부수리중	1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2관	별관 내부수리중	2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3관	별관 내부수리중	3관	킹스 스피치 (12세)
4관	별관 내부수리중	4관	비스틀리 (12세) / 블랙스완 (18세)
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5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6관	블랙스완 (18세) / 아이엠넬버포 (12세)	6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7관	킹스 스피치 (12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 파이터 (15세)
8관	웨이 백 (12세) / 파이터 (15세)	8관	아이엠넬버포(12세)/윈도우(12세)/웨이백(12세)
9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9관	아이들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10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10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킹스 스피치 (12세)	최고급관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웨이 백 (12세)	
4관	굿모닝 에브리원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6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8관	비스틀리 (12세)	
9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킹스 스피치 (12세)
2관	비스틀리 (12세)
3관	블랙스완 (18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4관	아이들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6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7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 파이터 (15세)
8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